



**시직공원 전망타워** 18일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에 건설중인 '사직공원 전망타워' 계단공사 크레인 작업이 한창이다. 전망타워는 20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3층 규모(높이 35m)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말 준공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靑 조오영 행정관 영장기각... '채동욱 의혹' 수사 난항

靑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등 체모군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7일 기각되면서 검찰이 안팎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관련자들이 잇따라 말을 바꾸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진실개입'을 보이는 상황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윗선' 또는 '몸통'을 밝히는 게 검찰의 과제다. 그러나 조 행정관 등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구속에 따른 심리

적 압박감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당분간 접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청구한 두 건의 사전구속영장 가운데 최소한 조 행정관의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업무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뉴스

# 400억 영산강 살리기 사업... 甲乙사슬 '비리 잔치'

전남경찰, 공무원·감리자·시공업체 등 43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 비리 수사로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비리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의 건설업체 비리 척결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로 요약되는 '비리 사슬' 구조는 공무원·감리, 시공사, 하청업체를 견고하게 엮어내고 쉽게 전방에 퍼져 있는 형편이다. 경찰이 '영산강 살리기 1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삼포지구)'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입건한 공무원 1명·시공사 관계자 9명·하도급 업체 관계자 13명 등 43명의 행태는 그곳된 전남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무원과 감리는 공사가 시작된 2010년 4월부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슈퍼갑(甲)' 행세를, 시공업체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甲) 짝'을 서슴지 않았다. 당장, G시공사 현장소장 박모(62) 씨 등 3명의 공사 첫 해부터 여류 휴가비, 명절 떡값을 50만~100만원씩

공무원과 감리 업무 담당자에게 챙겨왔다. 2~3개월마다 이뤄지는 기성금, 준공금 신청 때도 관행적으로 뇌물이 건네졌다. 감리 업무를 맡았던 김모(43)씨는 이런 방식으로 35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이 밝힌 감리 담당 직원 4명이 받은 금액만 81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 공무원 김모(50)씨는 공사 편의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챙겼고 시공사에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준 뒤 후배에게 400만원을 받았다. 또 시공사에 '현장을 돌리는데니 신발을 준비해달라', '동료 승진 축하 난을 보내달라'며 등산복·등산화·꽃배달까지 요구했다. 해당 공사가 책정된 예산(398억원) 소비와 공사기간 내 완공이 필수적인데다, 수중에서 이뤄지는 탓에 부실 여부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과 감리자는 뒷돈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준 셈이라고 경찰은 진단했다.

**공무원·감리 '슈퍼머' 행세**  
**시공업체는 하청업체 상대로 '甲 짝'**  
**4명이 받은 떡값 등 뇌물 8100만원**  
**등산복·등산화·꽃배달까지 요구**  
**비자금·횡령 금액도 수억원**  
**영터리 준설토에 농민들만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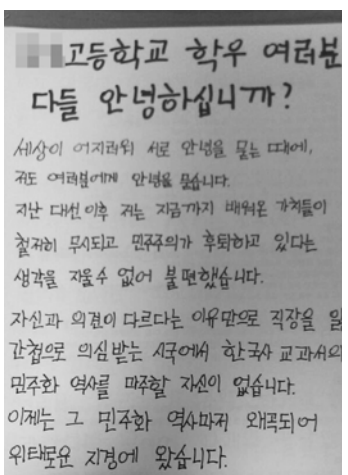
시공사의 '갑 짝'도 대단했다. 현장소장 하모(62)씨는 하도급 회사에 공사 수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고 현장 공무원인 김모(50)씨도 공사 편의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공사에 참여했던 전체 26개 하도급 업체 중 13개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 수수 및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최고 2000만원을 건넸다. 다른 3개 하도급 업체는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줬다. 이렇게 돌려준 5억여원은 비자금으로 조성돼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시공사 현장 관리과장 이모(38)씨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 공사액의 1.88%를 책정하도록 한 안전관리비에까지 손댔다. 안전화·안전모 등 구입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억원 가량을 횡령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검증 안된 준설토 탈수기를 도입하는 바람에 잦은 고장으로 계획(11만4000m)과 달리, 3만m의 준설토만 탈수해 허위서류 작성했다. 또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토사가 없어 부실한 혼합 과정을 거친 토사가 나주 옥정지구 농지 리모델링 현장에 투입돼 농민들의 농사를 망치는 결과도 빚어졌다. 공사 중 발생한 준설토는 폐기물인 오염된 진흙(오니·汚泥)이어서 농지성토 등에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와 1대1 비율로 섞어야 하는데도 양질의 토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점성토만을 혼합한 채 70만m가 나주 옥정지구 농지 리모델링 현장에 활용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총체적 부실 시공 및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43명(법인 3곳 포함)을 입건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인권 시비로 번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마침내 학생 인권과 자치활동 침해 시비로 비화됐다. 대자보 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자보 게시를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빚어진 논란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A고 3학년 황모 군이 최근 학교 내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사진)를 붙이려고 학생부에 찾아가 사진 신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황 군은 이 과정에서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 면박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고 싶지는 않다는 시국에서 학교에서 민주화 역을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민주화 역사까지 외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 한 고교생**  
**"학교서 허가않고 면박**  
**인권·자치활동 침해"**  
**교육청 "교장 허가받아"**

것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게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게시물 부착을 학교가 막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의견 표현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또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학내 공공장소에 게시물을 붙이는 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경우 학내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게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림기자 jwpark@kwangju.co.kr

## "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 노동계 손 들어줘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여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기존에 노사 합의가 있었고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임금 청구는 허용되

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을 상대로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퇴직 전 임료가 있었고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임금 청구는 허용되 /연합뉴스

대학가 사무실 임대 - 테마빌 인테리어 꾸미고 유사성행위 알선

○-대학가 인근에 사무실을 빌려 감옥·병원·학교 등의 테마로 꾸민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모(34)씨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삼촌동 H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빌딩 사무실을 임대한 뒤 7

가지 테마로 사무실을 꾸미고 20대 여성 종업원을 고용, 사전예약료 30분당 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전씨가 꾸민 테마빌 '유리방'의 경우 내부 전체를 유리로 둘러쳐 있는 특성 등으로 하루에만 수십 명이 찾은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는 후문. /박정림기자 halo@

**"프리미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중!**

**즉시입주**

-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 최고의 전망과 학군
- 엘리베이터 설치
-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고급 가스오븐렌지·식탁 설치

<b>1층</b> 주차장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b>2층</b>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b>3층</b>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b>4층</b>	A타입 27평 2세대	B타입 21평 2세대
<b>5층</b>	A타입 33평 2세대	B타입 28평 2세대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유 아 교 육 과	3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피아노, 보컬, 재즈, 트럼펫, 지휘, 오르간, 작곡, 플레식기타, 교회음악)	5
<b>총 계</b>		<b>3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일) · 전 형 일: 2014. 1. 3(금)

■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 장학제도  
 대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임용이 있는 대학 · 임용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왕산동2길 36

www.kwangshin.ac.kr